

○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질서.



INDEX

- 03 1. 인사말
- 2. 심사평
- 05 3. 공모전 소개
- 4. 작품응모 현황
- 06 5. 심사위원 명단
- 6. 공모전 수상작품
- 08 ■ 대상
- 포스터 부문
- 14 ■ 시 부문
- 21 ■ 글짓기 부문
- 7. 수상자 명단
- 8. 전시회 사진
- 9. 시상식 사진

1. 인사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요? 빌딩으로 빼곡하게 둘러싸인 도시 속, 도로마다 꽉 찬 차량들, 실 새 없이 올려대는 클랙스 소리, 왕래 없이 굳게 닫힌 아파트의 현관문들,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생각들. 현재 우리사회의 단절과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소득 수준, 민주주의 지수, 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있는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한 단계 올라 선 만큼 건강한 사회로의 도약도 한 단계 더 발을 내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물질적인 경제력보다 정신적인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기본을 실천하고 자신이 조금은 손해 보는 듯 한 미덕이야말로 진정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풍족한 선진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다문화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문화가정자녀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길 희망하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후원 아래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1회를 시작으로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인들도 이 작품집을 함께 읽어가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바로잡혀 있는 사회에 대해 생각하며 선진시민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상 작품집이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구

2. 심사평

2014년 제2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진행된 1회 공모전에 비해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공모전을 치른 경험과 더불어 시상 및 작품 전시 그리고 작품집 발간으로 인해 완성도 있는 작품들의 실례들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공모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어 심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종합대상을 받은 박선영 학생의 "지구 살리기" 포스터 작품은 초등학생의 생각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며, 주목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주제전달을 보여줌으로써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약진이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긴 문장을 요하지 않는 축약미의 시가 더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은지 학생의 "담배연기, 그만!" 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아이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잘 표현하여 시의 운율, 압축의 묘미까지 들어있는 작품으로 시적 완성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글짓기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서승희 학생의 "우리반 전학생" 은 실제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들어 재미있게 표현 한 작품으로, 어른스런 표현 보다는 나이에 맞는 담백함과 소박함이 수상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회째 아이들의 작품을 보는 심사위원장으로써 매년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에 놀랍고, 즐거움 과 동시에 아이들의 표현이 아닌 어른들의 지나친 손길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쉽게 접하고 쉽게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TV 보다는 책과 본인의 작·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글이 되었든, 그림이나 말이 되었든,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년 많은 작품의 접수로 인한 작품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이 더딘 것 또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라는 형식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교과수업 이외의 연계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비율도 많아져 학생 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수상작품 중 1/3 가량이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작품이라는 것에 공모전의 진정한 의미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모전에는 형식과 내용 등의 작품 내적완성도의 향상과 함께 더욱 다양한 응모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축제 같은 공모전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수상자에게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아울러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응모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심사위원장 김연수 ●



3. 공모전 소개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가정어린이들에게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년기부터 생활 속 작은 기본을 지키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기 간: 2014. 6. 9(월) ~ 8.22(금)

■ 공모대상: 전국 초등학생

■ 공모부문: 포스터, 시(동시), 글짓기

■ 공모내용: 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배려 등 기본을 실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

4. 작품응모 현황 · 다문화가정 : 277작품/ · 일반가정 : 387작품/
· 새터민가정 : 7작품

구 분	응모작품
포 스 터	2 6 5
시	3 2 8
글 짓 기	7 8
합 계	6 7 1

5. 심사위원 명단

시부문

김 연 수 문화평론가 (심사위원장)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드라마전공 석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엠게우) 세계문학이론/문예미학 박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부 교수
2004년부터 현재 TV, 라디오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

이 지 호

단국대학교 일어일문학 전공
현 감성공작소 비유 소속작가
현재 웹툰 스토리 〈나, 그녀, 그리고사신〉 집필 중

포스터

김 성 훈

2000년 2001년 경인 미술관 전시
2011년 갤러리 이즈 개인전
LG 생활과 건강 CF 아트 디렉팅
LG전자, 삼성전자, D&G ARTWORK
현 Design H 대표

한 덕 호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전공
연극: 사랑의 헛수고/무명/결혼/
자유로울 순 없나요/우리 읍내
영화: 단편-등대지기/NAIVE-DAYZ/
몽중인/누가 썼노?
드라마: SBS 달콤한 나의도시-최대리역

글짓기

박 지 영

단국대학교 영문학/국문학전공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영상문화학 전공(문학석사)
(주)디지털에볼루션 공공PR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 동 일

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공연예술학 석사 졸업
여성국극 주최, 주관 하에 연극분야
지도자상 수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극분야 예술인강사

Poster

포스터 부문

대상

지구 살리기
이름: 박 선 영 (수진 초등학교)

우수상

공공의 적, 속음
이름: 김 예 은 (이매 초등학교)

악플로 깨지는 인터넷 세상
이름: 한 재 영 (군산미룡 초등학교)

장려상

쓰레기들의 반란
이름: 조 민 제 (자운 초등학교)

편견을 누르면 하나가 돼요
이름: 남 성 혁 (천마 초등학교)

함께하는 기초질서 우리나라의 디딤돌
이름: 최 유 비 (부산남천 초등학교)

Poster
Sector

지구 살리기

Poster

대 상

제목:
지구 살리기
이름: 박 선 영
학교명: 수진 초등학교
학년 / 반: 4학년 1반
작품설명:
쓰레기로 가득 차
더러워져 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



공공의 적, 소음

P

우수상

제목:
공공의 적, 소음
이름: 김 예 은
학교명: 이매 초등학교
학년 / 반: 5학년 2반
작품설명:
지하철 안에서의 소음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한 여자가 양쪽 사람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
하는 모습이다.

Poster
Sector

악플로 깨지는 인터넷 세상

Poster

우수상

제목:
악플로 깨지는 인터넷 세상
이름: 한재영
학교명: 군산 미룡 초등학교
학년 / 반: 2학년 2반
작품설명: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악플 등)
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
고 악영향(상처받고, 아파하고,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을 불사하고, 서로 미워하는
나쁜 영향을 많이 준다)이 많다.



편견을 누르면 하나가 돼요

P

장려상

제목:
편견을 누르면 하나가 돼요
이름: 남 성 혁
학교명: 천마 초등학교
학년 / 반: 6학년 2반
작품설명:
편견이나 차별, 무시를 누르면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Poster 장려상

제목:
쓰레기들의 반란
이름: 조민제
학교명: 자운 초등학교
학년 / 반: 1학년 4반
작품설명:
작은 쓰레기들이 커다란 걸리버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만큼 쓰레기가
모이면 정말 무서워요.

쓰레기들의 반란



함께하는 기초질서 우리나라의 디딤돌

P

장려상

제목:
함께하는 기초질서
우리나라의 디딤돌
이름: 최유비
학교명: 부산 남천 초등학교
학년 / 반: 4학년 2반
작품설명:
함께하는 기초질서
우리나라의 디딤돌

Poem

시 부문

최우수상

담배연기, 그만!
이름: 최 은 지 (안산 원곡 초등학교)

우수상

특!!! 뛰어난은 말...
이름: 류 하 늘 (나물 초등학교)

건널목
이름: 허 용 길 (안산 원곡 초등학교)

장려상

예쁜 말, 고운 말
이름: 김 지 음 (광주 송원 초등학교)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이름: 이 미 옥 (안산 원곡 초등학교)

차레차레 줄을 서요.
이름: 김 자 현 (안산 원곡 초등학교)

담배연기, 그만!

담배 피우는 아저씨
아저씨가 좋아하는 그 냄새
너무너무 지독해서

못 참겠네 그 냄새
이리 가도 따라오고

저리 가도 따라오네

아저씨, 제발 떠나주세요!

P

최우수상

제목:
담배연기, 그만!
이름: 최 은 지
학교명: 안산 원곡 초등학교
학년 / 반: 1학년 2반

Poem |
Sector

툑!!! 뛰어나온 말...

내 입에서 나쁜 말 한 마디가
툑, 뛰어나왔어.

어디로 가나, 뭘 하나 살펴보니
친구 귤속으로 들어가더구나.

귤속에서 뭘 하나 보니
바늘로 친구 귀를 찌르네??

친구야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내 입에서 사과의 한 마디가
툑, 뛰어나왔어.

어디로 가나, 뭘 하나 살펴보니
친구 귤속으로 들어가더구나.

귤속에서 뭘 하나 보니
속닥속닥 속닥거리네??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Poem

우수상

제목:
툑!!! 뛰어나온 말...
이름: 류하늘
학교명: 나룰 초등학교
학년 / 반: 6학년 3반

건널목

친구와 손잡고
천천히
빨간 불, 노란 불
친구가 아니야
파란불만
내 친구

P

우수상

제목:
건널목
이름: 허용길
학교명: 안산 원곡 초등학교
학년 / 반: 1학년 4반

Poem |
Sector

예쁜 말, 고운 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듣고 자란 속담

어릴 때 고운 말 듣고 자라면
커서도 고운 말
어릴 때 나쁜 말 듣고 자라면
커서도 나쁜 말

고운 말 쓰면
칭찬받고
나쁜 말 쓰면
야단맞고

안녕?
사랑해

고운 말 쓰기 참 쉽네

예쁘다
고마워!

고운 말 쓰기 참 쉽네

Poem

장려상

제목:
예쁜 말, 고운 말
이름: 김 지 음
학교명: 광주 송원 초등학교
학년 / 반: 4학년 3반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내 친구 입에서 못생긴 말만 나와요.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내 친구가 입을 열면 내 귀가 힘들어요.
내 친구는 정말 못생겼어요.

내 친구가 예뻐졌어요.
내 친구 입에서 예쁜 말만 나와요.
내 친구가 예뻐졌어요.
내 친구가 입을 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내 친구가 정말 예뻐졌어요.

P

장려상

제목: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이름: 이 미 옥
학교명: 안산 원곡 초등학교
학년 / 반: 6학년 3반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오른쪽으로 줄을 서요.
왼쪽으로도 줄을 서요.

반듯하게 줄을 서요.
부딪치지 않아요.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Poem

장려상

제목:
차례차례 줄을 서요.
이름: 김 자 현
학교명: 안산 원곡 초등학교
학년 / 반: 2학년 3반

Writing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

우리 반 전학생
이름: 서 승 희 (성남 중원 초등학교)

우수상

내 마음속의 작은 배려
이름: 남 희 연 (청주 한별 초등학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마음이 사랑이 돼요!
이름: 오 서 현 (서울 한산 초등학교)

장려상

갓길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
이름: 조 영 훈 (김포 유현 초등학교)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
이름: 장 나 린 (인천 작전 초등학교)

외국 사람은 빠져
이름: 최 윤 진 (안양 해오름 초등학교)

차례차례 줄을 서요.

오늘 우리 반에 특별한 전학생이 왔다. 이름은 시호이다. 시호는 일본인이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시호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시호를 좋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호를 괴롭히기도 했다. 나는 시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도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을까 봐 도와주지 못했다. 그때 시호가 울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너희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같은 나라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두 같은 소중한 친구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렴” 이라고 우리를 훈계하셨다.

우리 반 개구쟁이 호동이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시호를 괴롭히면서 장난을 쳤다. 호동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시호를 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시호와 놀지 말라고 말했다. 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호를 괴롭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빠는 여러 명이 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하였고, 또한 외국에서 온 친구가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배운 대로 호동이에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맞게 우리도 시호와 잘 지내야 된다고 열심히 설득했다. 호동이는 심각하게 알아듣는 듯하다 시호를 보더니 또 장난을 치려고 달려 나갔다. 그때 호동이가 의자에 걸려 넘어져서 코피가 났다. 그 모습을 본 시호가 얼른 호동이를 데리고 양호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호동이는 치료를 받고 나서 미안했는지 시호에게 가서 고맙다면서 매점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웃으며 시호에게 같이 가라고 응원해줬다. 나도 시호와 호동이와 같이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호동이 콧구멍에 낀 솜뭉치를 빼주었다.

내 마음속의 작은 배려

화창한 월요일 아침,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교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있으니 처음 보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고 머리와 눈 색은 갈색이었다. 얼굴색은 나처럼 좀 까맣다. 정말 친해지고 싶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거의 오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시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있어. 이름은 채니, 필리핀 아이야. 그리고 한국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서툴고 한국말을 잘 못해. 아마 영어를 쓸 거야. 다문화 아이니까 너희들이 잘 챙겨줘.”

나는 영어라는 말에 잠시 굳어버렸다. 물론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어 수준은 어린이 수준이고 채니는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 분명히 영어가 수준급일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대화를 나눠보라고 교실을 나가셨다. 그 뒤 우리 반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른 애들은 어느 때와 같이 떠들고 놀았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놀지 못했다. 채니가 우리 반에서 적응을 잘 못 하고 소외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문화 아이가 적응을 잘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시켰던 민주가 채니에게 말을 걸었다. 물론 민주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아니, 잘못한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니에게 말을 거는 민주가 부러웠다. 용감한 민주 덕분이었을까? 다른 애들도 점 점 채니에게 말을 걸고 친해지게 되었다. 나도 다가가고 싶었지만 뭔가 무서웠다. 쉬는 시간마다 여자애들은 이제 삼삼오오 모이지 않고 채니와 함께 모두 모여서 놀았다. 그러면서 점차 나도 채니와 친해지게 되고 번호도 교환했다. 그렇게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과 채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우리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시계를 확인도 안 하고 놀아서 수업시간에 늦어버렸다. 선생님은 별로 보람과 배려에 대해서 따라 쓰고, 밑에 한 번 더 쓰는 ‘가치 사전’ 이란 것을 쓰게 했다. 몇몇 아이들은 글씨 쓰는 속도가 빨라서 금방 썼고,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도 선생님이 주신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학교가 끝나기 전에 다 썼다. 하지만 우리 반의 문제가 한 명이 쓰지 않아서 우리 반 아이들 모두 남아서 그 애가 빨리 쓰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3시가 다 되어서야 다 쓰고 말았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늦었다고 급하게 집으로

Writing

최우수상

제목:

우리 반 전학생

이름: 서승희

학교명: 성남 중원 초등학교

학년 / 반: 4학년 5반

W

우수상

제목:

내 마음속의 작은 배려

이름: 남희연

학교명: 청주 한별 초등학교

학년 / 반: 6학년 4반

향하였다. 채니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던 민주도 학원을 가야 해서 급하게 갔다. 그렇지만 채니는 다문화 교실을 가야했다. 다문화 교실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민주는 학원 때문에 데려다 주지 못한다고 많은 걱정을 했다. 채니는 괜찮다고 영어로 말하고 혼자 갔다. 선생님께서 다문화 교실이 어딘지 알려줬다고 해도 오늘 처음 온 아이였다. 그런 생각을 하자 뒷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다. 나는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넉넉히 비어있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는 유진이에게 같이 채니를 다문화 교실까지 데려다 주자고 했다. 하지만 학원에 늦었다며 빨리 가자고 나를 재촉했다. 나도 유진이 말을 따르고 싶었지만 내 발이 집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점점 오늘 쓴 배려에 대한 가치사전 내용이 떠올랐고 채니를 데려다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아, 미안해! 나는 채니 데려다 주려고!”

하는 수 없이 유진이에게 이 말을 하고 채니에게 갔다.

채니는 많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수 없었다. 많은 갈등을 했었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채니에게 한 작은 배려는 말만 어려워 보이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배려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배려하는 나라로 바뀐다면 하하 호호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Writing

우수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마음이 사랑이 돼요!

우수상

나는 얼마 전 내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말싸움이었는데, 뜻밖에 절교선언까지 하고 말았다. 그날 집에 오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4학년이 된 뒤, 줄곧 단짝으로 보냈던 친구와 하루아침에 절교를 하게 됐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까칠까칠하게 느껴지고 편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하고는 내 방에 들어가 누워 버렸다.

“누나! 내가 오늘 문방구에서 이거 뽑았는데, 누나 것도 뽑아왔어!”

내 동생이 방문을 벌럭 열고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 ‘뭔데?’ 라고 물었을 텐데,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몰라, 나가!”

“왜 그래? 내가 누나 것 뽑아 왔다니까? 안 좋아?”

동생은 눈이 동그아졌다. 그런데 나는 동생에게 답해주기 짜증이 났다.

“시끄러, 나가라고!”

내가 팩 소리를 지르자, 동생은 내게 신경질을 부렸다. 부엌에서 일하시던 엄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셨다. 동생은 엄마에게 내가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렸다고 고자질을 했다. 엄마는 동생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동생을 데리고 나가셨다. 나는 엄마에게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냥 나가셔서 이상했다. 하지만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방에 뒹굴뒹굴 누워 있자니 심심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 언니를 검색하기로 했다. 아이유 언니의 사진을 보니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유 언니를 참 좋아한다. 아이유 언니는 어릴 때부터 가수를 할 만큼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정말 잘 춘다. 나도 아이유 언니처럼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 아이유 언니의 기사를 보고 블로그를 보다가 나는 이상한 글들을 보게 되었다. 아이유 언니가 나오는 신문의 기사들 아래에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 놓은 것이다.

처음엔 그 글들이 나처럼 아이유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쁜 말들과 심술들이 글 속에 가득했다. 어떤 글은 아이유 언니의 목소리에 대해 트집을 잡았고, 어떤 글들은 아이유 언니의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놀림 글이었다. 나는 이 글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쉽게 이런 글들을 볼 수 있는데, 아이유 언니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 글들을 아이유 언니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도 속이 상하고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이다. 나는 아이유 언니가 무척 불쌍했다.

이렇게 아이유 언니에 대한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와의 말싸움이 생각났다. 나는 아침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유행어를 썼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모르는 눈치였다.

“야, 너는 개그콘서트도 안 보고 뭐 하냐? 완전 어이없다.”

나는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는 자존심이 상했었나 보다.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유치하게 그런 거 안 보거든. 넌 몇 살 이냐? 유치한 거 보고 앉아 있게!”

그래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절교 선언까지 했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내 친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나는 ‘완전 어이없다’란 말을 사용했다. 유행어를 모르는 친구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뻔뻔하게 날아오는 친구의 말을 나도 날카롭게 되받아쳤다. 친구의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

나는 국어시간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속담을 배운 적이 있다. 그때는 그저 속담으로만 생각했던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오늘 나와 친구의 상황과 같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했다면 내 친구의 말도 날카롭진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되었다.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W

우수상

제목: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마음이
사랑이 돼요!
이름: 오 서 현
학교명: 한산 초등학교
학년 / 반: 4학년 4반



Writing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문득 내가 그 친구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 나였다면 더 많이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똑! 똑!”

방문이 열리고 동생이 새침한 표정으로 간식을 먹으라고 했다. 동생의 표정을 보니 아까 내가 짜증 내고 심술부렸던 일로 마음이 무척 상한 것 같았다. 나를 위해서 뽑기도 해 주었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나는 동생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채호야, 뽑기 내 것도 있어?”

“어? 이제 화 안내?”

“응, 미안해. 아까 짜증 내서”

“괜찮아. 기다려 누나!”

동생은 씩 웃으며 뽑기를 가지러 방에 갔다. 나는 동생이 무척 많이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짧은 사과 한마디에 기뻐해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따뜻한 말의 힘은 무척 짧은 말이라도 상관없이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동생의 밝은 표정을 보니 신기하게도 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동생이 건네준 뽑기를 받아 들고 엄마와 재잘재잘 떠들며 간식을 먹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집에 돌아와 짜증 부렸던 일도 깜빡 잊었다.

“그런데 서현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친구의 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에게 잠깐 전화하고 오겠다고 하고, 핸드폰을 들었다. 내 친구의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나 서현인데, 바쁘니?”

“아니, 왜?”

“음, 사실 아까 학교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네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어. 미안해.”

“아냐, 나도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도 미안해.”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나니, 내 친구도 마음을 열어 내 진심을 받아 주었다. 나는 친구와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친구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겨우 끊었다. 아까까진 절교를 하겠다고 했던 친구와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으니 나는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장난처럼 농담처럼 건네는 말 한마디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속담은 조금 바뀌어도 좋겠다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에 ‘오는 마음까지 사랑이 된다’ 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앞으로는 친구나 가족에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에게 말이나 글을 쓸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조심하도록 해야겠다.

갓길,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

가족들과 명절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무수히 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서 가고 있을 때 갓길에서 아주 빠르게 달리는 소수의 차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자주 ‘저 차들은 뭐지?’ ‘많은 사람들이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갓길을 타고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경찰이 확 벌금을 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처럼 고속도로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차 없이 갓길을 타는 차가 아주 많다. 그것이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갓길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해진 차선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한다. 위급한 상황에만 긴급 차량들이 사용하는 갓길을 우리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갓길을 이용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서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운전해서 간 적이 있다. 빨리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었는데 다른 차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정말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었다. 내 특유의 인내심으로 겨우겨우 폭발의 위기를 넘기고 도착해서 시골로 들어가니 우리보다 늦게 출발하셨다던 삼촌께서 벌써 와 계셨다. 그분은 해답이 갓길에 있었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삼촌은 갓길을 타고 오셔서 빠르게 오신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내 마음속에는 삼촌에 대한 반가움이 사라지고 증오심으로 꽉 차 있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왔는데 그분들은 토끼만큼 빠르게 오셨다는 사실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내가 갓길이 무엇인지 중요성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 차도 갓길을 타고 시골로 빠르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갓길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차들이 만약 우리 삼촌처럼 갓길을 이용한다면 긴급 차량들은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깊은 뜻에서 만들어진 갓길을 차량의 추월과 주차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갓길 위반 시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갓길 통행을 할 경우 승합차는 70,000원, 승용차는 60,000원, 이륜차는 40,000원, 자전거는 30,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갓길에 자동차 바퀴를 대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W

장려상

제목:
갓길,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
이름: 조영훈
학교명: 김포 유현 초등학교
학년 / 반: 6학년 난초반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십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아파트 관리실 할아버지께서 방송으로 담배꽂초를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말라는 것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주민들이 싫어하니 조심해 달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 저희 집 현관문을 열어 두고 담배 냄새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맵고, 기침이 나오는 그런 냄새를요.

저희 아파트에는 저와 제 동생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파트 관리실 할아버지께서 작은 규칙을 신경 쓰십니다.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 서로 조심하고 지킵니다. 아저씨는 아마 아주머니랑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서로 약속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옆집 아저씨가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순간에는 그 작은 규칙은 엉망이 되고 현관문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인 저랑 이제 4살인 제 동생이 있는 저희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랑 동생은 기침을 하고 코를 손으로 막아 버리지요. 엄마는 현관문을 닫아버리시면서 저랑 동생이 담배 냄새를 맡아 간접흡연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라 하십니다. 간접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저에게 엄마 아빠는 계속, 계속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져서 나중에 큰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랑 동생은 5살 차이가 나지만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돌봐왔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생이거든요. 그런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길에서 옆집 아저씨를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아저씨 또한 담배를 피우십니다. 하지만 아래층 아저씨는 저희 식구가 저녁에 산책을 다녀오면 가끔 만나는데 꼭 1층 정해진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집으로 올라가시곤 하십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그 자리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위해 마련해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옆 집 아저씨를 만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층 아저씨처럼 담배를 피우시려면 정해진 곳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곳에서 피세요.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작은 약속도 못 지키시면 나중에 서로 얼굴을 찌푸리게 되니 서로 서로 노력해서 작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라고요.

W

장려상

제목: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
이름: 장 나 린
학교명: 인천 작전 초등학교
학년 / 반: 2학년 2반

하려면 벌금을 엄청나게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갓길 사용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벌금은 갓길을 이용한 차의 가격만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갓길 사용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운전자들이 갓길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내비게이션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갓길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빠께서는 갓길 이용자들이 감시 카메라만을 피하여 운전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비게이션과 사람이 감시 카메라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감시 카메라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갓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셋째, 나의 생각에는 스마트 갓길 블랙박스를 만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스마트 갓길 블랙박스란 자동차들이 갓길을 이용하였을 때 이용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로 보내는 블랙박스를 의미한다. 감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갓길 이용자들을 모두 잡으려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들 모두에게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도록 한다면 갓길 사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갓길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 중 하나인 차가 고장 났을 때의 갓길 사용은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부르는 렌터카가 경찰서에 사실을 알람이 보고하면 갓길 이용을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해결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갓길을 이용하여 더 빠르게 가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 갓길 사용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갓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급 차량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착하여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리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갓길은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길 중 하나이다. 갓길은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다. 갓길을 사용하는 것은 위급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막는 것이다. 갓길 사용 금지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Writing

장려상

외국 사람은 빠져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라인을 탔다. 엄마는 오늘도 시원한 얼음물하고 간식을 들고 나오셨다. 엄마는 놀이터에 나올 때마다 간식하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오신다.

인라인을 타고 놀다가 목이 마르면 엄마에게 달려간다.

“목마르지 얼른 물 마셔.”

엄마는 시원한 얼음물을 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주셨다.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나만 먹으면 다른 친구들도 먹고 싶을까 봐 친구들 줄 간식도 들고 나오시는 것이다. 난 엄마가 주신 빵이랑 과자를 내 친구들도 나눠 주고 언니들도 나눠줬다. 간식을 친구들에게 나눠 주다가 피부가 검고 눈이 크고 입술도 두꺼운 언니한테 “외국 사람은 빠져.” 라고 농담을 했다.

난 정말 장난으로 한 말 이었는데 엄마가 달려왔다.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야단을 치셨다.

“윤진이 너 방금 언니한테 뭐 라고 했어?”

난 엄마가 나한테 뭐 라고 하는 게 속상해서 울기만 했다. 난 그냥 그 언니가 우리보다 피부도 검고 눈도 크고 입술도 두꺼워서 장난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러는 건지 그냥 속상하기만 했다. 엄마는 그 언니가 왜 우리보다 피부가 검고 다르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셨다. 그 언니의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셨다. 학교에서 배웠던 다문화 가정 이였다.

우리랑 다르게 생긴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해주셨다.

엄마가 만약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설명도 해주셨다.

엄마 얘기를 듣고 생각 보니 그 언니한테 미안해졌다.

“윤진이가 엄마 말을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이젠 윤진이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

엄마가 물어보셨다.

난 바로 그 언니한테 가서 사과했다.

“언니 난 아까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언니 속상했지?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다.

그 언니는 “괜찮아.” 하고 나의 사과를 받아줬다.

언니가 나의 사과를 받아줘서 나는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언니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니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서 외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말 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부러웠다.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고 일기를 쓰는데 그 언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편지로 쓰라고 하셨다.

언니 나 윤진이야.

아까 놀이터에서 친구들한테 간식 나눠 주면서 언니한테 외국 사람은 빠져 라고 놀려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장난 안 할게.

언니 화 풀어.

언니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리고 언니 필리핀 말 할 수 있어?

나 좀 가르쳐 주라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와. 내 장난감도 빌려 줄게.

난 언니에게 편지를 쓰고, 예쁜 스티커도 붙이고,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언니한테 편지를 줬다.

편지를 읽고 언니는 웃으면서 “난 이제 괜찮은데” 하면서 언니가 먹으려고 들고 있던 막대사탕을 나한테 줬다. 내 사과를 받아준 언니가 고마웠고, 언니가 먹으려던 사탕을 나에게 준 언니가 또 고마웠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으로 봤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고

내 마음을 받아준 언니가 너무 좋다.

언니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7. 수상자 명단

구분	부문	이름	학교	학년 반	작품제목
대상	포스터	박선영	수진초등학교	4학년 1반	지구 살리기
최우수상	글짓기	서승희	중원초등	4학년 5반	우리 반 전학생
	시	최은지	원곡초등학교	1학년 2반	담배연기, 그만!
우수상	포스터	김예은	이매초등학교	5학년 2반	공공의적, 소음
	포스터	한재영	군산미룡초등학교	2학년 2반	악플로 깨지는 인터넷 세상
	글짓기	남희연	한별초등학교	6학년 4반	내 마음 속의 작은 배려
	글짓기	오서현	서울한산초등학교	4학년 4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마음이 사랑이 돼요!
	시	류하늘	나물초등학교	6학년 3반	툭!!! 튀어나온 말...
	시	허용길	원곡초등학교	1학년 4반	건널목
장려상	포스터	조민제	자운초등학교	1학년 4반	쓰레기들의 반란
	포스터	남성혁	천마초등학교	6학년 2반	편견을 누르면 하나가 돼요.
	포스터	최유비	부산남천초등학교	4학년 2반	함께하는 기초질서 우리나라의 디딤돌
	글짓기	조영훈	유현초등학교	6학년 난초반	갓길, 위급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
	글짓기	장나린	인천작전초등학교	2학년 2반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
	글짓기	최윤진	안양해오름초등학교	1학년 4반	외국 사람은 빠져
	시	김지음	광주송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예쁜 말, 고운 말
	시	이미옥	원곡초등학교	6학년 3반	내 친구는 못생겼어요.
	시	김자현	원곡초등학교	2학년 3반	차례차례 줄을 서요

8. 사진으로 보는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전시회



9. 시상식 사진



[사] 건강사회 운동본부 소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도 건강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 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의료계 단체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이 2008년 11월 연대하여 ‘건강한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보건의료 단체가 연대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선진화된 시민문화 육성을 위해 건강한 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건강사회운동본부로 발족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위해 전문가 집단인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전문가 조직으로 국민에게 친숙하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비롯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통일된 주제 구현을 실천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건강’ 이라는 부분은 보건의료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캠페인 진행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유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 세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는 몸·마음·가정·세계의 건강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 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연혁 및 활동 사항

2008년 11월 14일 건강한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
 2009년 03월 25일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서울역)
 2009년 04월 29일 고문, 자문위원, 홍보대사 위촉식
 2009년 06월 14일 환경캠페인(관악산)
 2009년 10월 25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2009 하하 아시안 페스티벌
 2010년 03월~05월 법무부 가정헌법 공모전 후원단체 참여 및 시상
 2010년 06월 13일 안산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지원 및 고충상담회
 2010년 10월 10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2010 하하 아시안 페스티벌
 2011년 03월 30일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 발족식
 2011년 04월 13일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 법인 설립 인가 (법무부)
 2011년 03월~05월 법무부 가정헌법 공모전 후원단체 참여 및 시상
 2011년 05월 20일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 외국인을 위한 건강캠프
 2011년 06월 26일 안산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지원 및 고충상담회
 2011년 09월 30일 지정 기부금 단체 승인 (재정경제부)
 2011년 10월 09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2011 하하 아시안 페스티벌
 2011년 10월 30일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사회만들기 2011 한마음걷기축제
 2011년 12월 26일 다문화장애가정 물품후원식
 2012년 02월 21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2년 03월 30일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2012년 05월 20일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 외국인을 위한 건강캠프
 2012년 09월 04일 지구촌학교 치과 및 안과검진
 2012년 10월 07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2012 하하 아시안 페스티벌
 2012년 10월 28일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사회만들기 제2회 한마음 걷기축제
 2012년 11월 31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요리책자 제작 및 배포
 2012년 12월 10일 다문화장애가정 물품후원식
 2012년 12월 21일 비영리민간단체 승인 (행정안전부)
 2013년 02월 06일 인하대병원과 함께하는 장봉도 의료봉사
 2013년 03월 20일 소식지 해맑은 누리 제2호 발행
 2013년 03월 27일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2013년 05월 01일 다문화가정의 법질서 의식함양 및 건강사회 기반조성 사업(안전행정부)

2013년 06월 03일 제1회 다문화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2013년 06월 19일 건강사회봉사단 발대식
 2013년 09월 08일 안산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이동진료
 2013년 10월 06일 의정부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이동진료
 2013년 10월 13일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제3회 한마음 걷기축제”
 2013년 11월 13일 제1회 다문화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전시회
 2013년 11월 17일 인천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이동진료
 2013년 12월 17일 노인종합복지관 물품후원식
 2013년 12월 18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요리책자 제작 및 배포
 2014년 03월 20일 소식지 해맑은 누리 제3호 발행
 2014년 03월 24일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2014년 04월 24일 제1회 다문화 새터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2014년 05월 01일 다문화가정의 법질서 의식함양 및 건강사회 기반조성 사업(안전행정부)
 2014년 06월 09일 제2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2014년 06월 15일 양주 광적성당 다문화가정 및 아주근로자 이동진료
 2014년 06월 20일 북한이탈의료인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4년 07월 06일 양평 치과 무료이동진료
 2014년 10월 05일 2014 의정부 하하 아시안 희망페스티벌 이동진료
 2014년 10월 26일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제4회 한마음 걷기축제
 2014년 11월 16일 인천 다문화가정 및 아주근로자 이동진료

제2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구

발행처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기획 / 편집 백영주

후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501(무교동, 원창빌딩)

전화 02) 3789-0041, 2286 / 팩스 02) 3789-0042 / <http://www.건강한사회만들기.org>

디자인 Design H 김성훈

